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랑하나이다

(시편 18:1)

충현

THE CHUNGHYEON TIMES

1973년 7월 8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종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27) 9937 • 9738

□ 당회장 메시지 □

충현교회의 진로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옵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심은 흠어진 자들을 당신의 사랑과 권능의 날개 안에 모으시고

- 1)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 2) 몸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 3) 죄로 썩어져 가는 영혼을 성령으로 중생시키시어서
- 4) 영생의 복락을 주시기 위하여 세워 주시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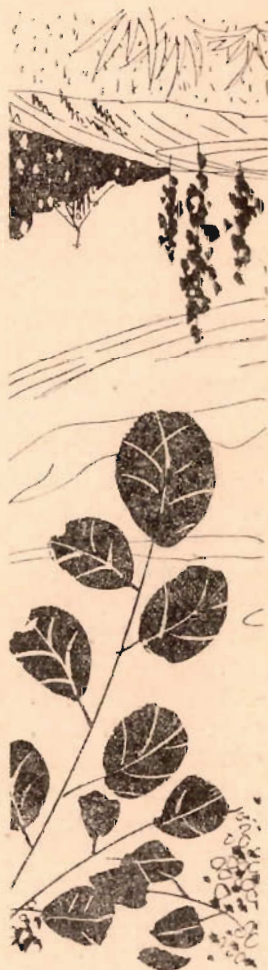
그런고로 우리 충현교회는

-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에 힘쓰고
- 2) 성도끼리 피차에 은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조심하며
- 3) 나 자신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를 주 안에서 해결함받고
- 4) 불신사회에 천국의 구원의 은총을 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천국운동을 앞세우지 않고 세상운동을 앞세우거나, 형식만 남고 성령의 역사가 없든지, 슬레없이 당파만 꾸미고 예수님의 명령을 떠날 때에는 타락된 바리새파들처럼 불이 꺼진 등대요 지옥의 자식을 키우는 소굴이 되고 맙니다.

그런고로 우리 충현교회는 천국운동을 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받은바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과 의논하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히 받아서 세상과 악마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성으로 듣고 배우고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헌신생활을 하여 선한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 교 □

하나님의 생각

성경/렘 29:10-14

정 기 성 목사

주전 59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은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 기물을 비롯하여 백성의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갔으며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 갔습니다.

그 때문에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백성은 실망과 낙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망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생각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백성의 이 같은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1. 하나님의 가치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포로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세상을 사는 동안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점들이 그림자같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사람을 괴롭히는 저주거리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사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고난속에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렘전 5:6-11).

이것은 사람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 땅에 있는 것으로 귀하게 여기고 땅에 있는 것으로 실망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죄도 지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참 평안과 사랑으로 넘치는 하늘나라의 것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려고 애쓰십니다.(마 6:19, 20, 23. 고후 4:18).

그리하여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가난에 빠지게도 하시고 병중에 있게도 하시고 핍박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축복으로 축

음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사 57:1-2).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생활을 기쁘게 하며 자유롭게, 의롭게, 풍성하게 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고난은 이 같은 것들을 풍성하게 합니다. 회개와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나니”(시 116:15) 성도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징계요(히 12:5-8),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참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만일 고난 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면 실족하여 없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2.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포로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 하나님의 축복을 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앓은 고통중에서 그대로 죽겠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요구하십니다(눅 11:5-8).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 버리겠읍니까?

기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순종하므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본교회 부목사>

◇ 여름 행사 ◇

여름을 맞는 주교각부의 계획

■ 제20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매년 개최해 온 주교 1부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는 금년으로 20회를 맞는다. 이는 충현교회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되어 충현의 성장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착실히 성장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오는 7월 25일 오후 개회 예배로 시작되어 29일까지 계속될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준비와 진행의 전체적인 책임은 유년부 부장이신 최 석주 장로로서 그의 지칠 줄 모르는 정력과 해박한 주일학교의 행정능력을 십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간중 오전예배를 통해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초등부 지도이신 홍종만 전도사, 새벽 기도회는 선교사 후보생이며 현재 유년부 부지도이신 이종영 전도사, 어린이 심령부흥회를 목격하고 있는 저녁집회는 (착한 어린이센터) 총무이신 원우연 전도사로, 원 전도사는 어린이 교육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분이다.

금번 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 교우의 기도와 특히 최일선의 담당 교사들의 희생을 전제한 참여와 협력으로 성공적으로 끝을 맺어야 하겠다.

■ 유치부는 말씀의 생활화 목표

금번 유치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가르치기 위하여 시청각교재를 다각도로 이용하며 말씀의 생활화를 위한 학습지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는 우리 교사 한분 한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도록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며,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리라 믿는다.

■ 중등부 하기수양회는 특별훈련 기간으로

특별한 신앙훈련 기간을 통하여 주일학교에서 실시해 온 신앙교육이 곧 생활화 되도록 함으로써 교회가 원하는 천국 일꾼을 양성하려는 데에 본 하기 수양회의 목적이 있다. 더우기 금번 수양회는 종래 교회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바꾸어 교회 밖으로 나가 일정한 장소를 택해 실시코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새벽부터 취침

까지 전 하루를 함께 생활하면서 집중된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새로이 변화를 받아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군사 곧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번 수양회를 실시한 후 중등부에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고 힘차게 타올라 귀한 천국일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바란다.

■ 고등부를 성령으로 새롭게

교회 안의 청년들의 신앙을 한눈에 볼 때 외모로는 딱 쉽게 진단할 것 같으면서도 실상 그들과 대화를 열어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회의와 불안안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금년으로 열한번째 맞는 고등부 하기 수양회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보다 청소년 실정에 부합하고 가장 요청되고있는 변화(Changing Heart)의 경험을 줄 수 있는 산상의 성회를 가지려고 한다.

가지 가지의 의심과 불만에 가득찬 문제의 신앙을 깨우쳐 주고 쏟아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한 성령의 체험일 수 밖에 없는 줄을 감안하여 장소도 청평 한일산 기도원을, (성령으로 새롭게—딤후 3:5)라는 주제로 그야말로 너도 나도 새롭게 되는 일생 일회의 절호가 될 것을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이다.

■ 대학부 생활속의 십자가를

하기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은 큰 희망 가운데 젖어 있다. 평상시는 여러가지 제한 때문에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없는 터에 비록 짧은 기일이긴 하지만 단체생활을 통하여 다각적인 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년 하기수양회는 「생활속의 십자가」라는 주제 아래서 현실을 믿음으로 굳건히 이기어 나가는 신앙훈련을 하고자 기도의 능력을, 진리 지식의 성장을, 성령 은혜의 체험을 바라고 있다.

또한 평소 갖기 어려운 대학부 회원간의 성도의 교제를 함으로써 신앙동기의 기쁨을 마련하여 주고 싶다. 그러므로 성년 20년을 맞이하는 충현교회의 젊고 씩씩한 일꾼들을 각 분야에 배출함으로써 이 시대의, 새 능력 있는 일꾼을 키우고자 한다.

□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 □

성경학교 설립 계획안(초안)

-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인 성경학교 설립계획 초안이 6월 3일 성경학교 분과위.....◇
 ◇.....원회에서 논의됨으로써 성경학교의 윤곽이 드러났다. 초안이기에 약간의 수정은 예견.....◇
 ◇.....되나 교우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여기에 진문을 밝히는 것이다. <편 집 실>.....◇

1. 취 지

충현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목된 성경학교 설립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

2. 목 적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의 진리를 바로 터득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건실한 생활인과 교회의 봉사자를 양성함.

3. 명 칭 「충현 성경학원」

4. 방 침

1) 현재 사회생활에 임하여 있는 기성교인들로 하여금 기독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실력을 배양함.

2) 이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 요건이 필요함.

- ①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
- ②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체험
- ③ 성도간의 밀접한 힘의 결합
- ④ 선한 사업을 위한 열의

3)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교육함.

- ① 성경 말씀에 정통하도록 교과과정을 중점적으로 편성함
- ② 개인적인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도록 경건생활 지도에 힘씀
- ③ 진리 지식의 실천을 위하여 개인생활 지도에 힘씀

5. 입학 자격

본 교회의 남녀 세례교인 혹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다른 교회 교인.

6. 정 원 학년당 60명

7. 수업 년한 3개년(6학기)

- 1) 1학기—3월초~6월말(4개월간)
2학기—9월초~12월초(4개월간)
- 2) 주당 수업일—월·화·목(3일간)
- 3) 매일 수업시간—50분 2개 교시(야간수업)
- 4) 교과목—성경전서

8. 운영비

- 1) 교회 보조(학교 운영비)
- 2) 입학금 및 수업료(자치활동비)

9. 감 사 본 교회 교역자

10. 개 교 1973년 9월 18일 예정

11. 부설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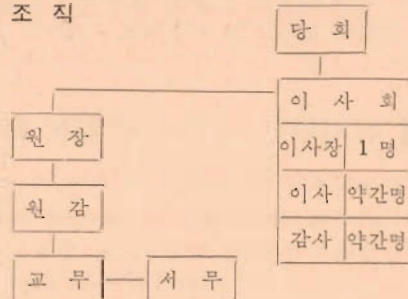
적당한 시기에 다음과같은 교육활동을 실시함

- 1) 지도자 양성과(6개월 과정)
- 2) 단기 훈련과(수시 훈련, 교육)

12. 시 설

- 1) 사무실
- 2) 책상 및 캐비닛
- 3) 도서(학생용·강사용)
- 4) 교실
- 5) 학생용 책상·결상

13. 조 직



(불기둥)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다. 남의 잘못을 함부로 캐는 일이란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넌지시 한 마디 비유로서 깨우쳐 주셨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 7:3). 자기는 「들보」만한 허물이 있으면서, 어찌서 티(티끌)만한 남의 허물을 책잡아 말하느냐 하셨다. 정말 남의 것은 「티」이고 나의 것은 「들보」일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안다. 더구나 그것들 중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의 경우는, 드러난 허물이나 죄에다 혼자만 아는(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으니, 양쪽을 합치면 「들보」가 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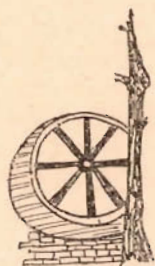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자칫 다른 사람을 얕잡아 단점만을 쾄다든가 험담으로 흐른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기의 「들보」는 모르고 남의 「티」만 나무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게는 없는가?

<조>

□ 목회 수필 □

물 흐르듯 하는 목회

노 의 일 전도사



한강수 흐르는 물이 천년을 흐르고 만년을 달리거니와 오늘도 그 물은 면면히 펼쳐져 내려간다.

그러나 어제의 그 물은 오늘에 없고 오늘을 이은 강수는 내일은 어디서 찾을고!

인생!

과거 수많은 어른들이 이 땅에 편만히 사셨고 오늘을 꾸려나가는 우리들이 어제를 채받아 생존하고 있거니와 내일에 이르러 나는 정녕 어디로 간다는 말이고.

사람들은 옛부터 이같은 사색을 지녔고 따라서 인생의 허무를 되새곤 하였거니와 언필칭 세월은 유수 같고 인생은 덧없다고 장탄식을 하고 만 것이 아닌가?

이 유수 같은 세상을 물흐르듯 살아가는 우리들은 흘러 흘러 내려가는 “흐르는 물”같이 살아감이 자연스럽지 않으랴. 속설에 가로왈 “개눈엔 x만 보인다든가?”

나는 흐르는 인생, 유수 같은 세월, 떠내려가는 강물을 의식하고 거기에서 목회의 원리를 명상해 본다.

물은 크나 큰 비전(vision)을 지녔다. 그것은 바다로 향한 근원적 의지다. 그래서 그는 흐른다. 아래로 아래로 대양을 바라고—

한편 유수는 흐름 뿐만 아니라 탐스러운 지혜를 지녔고 인내의 덕을 소유하였다.

보라, 그 물은 가다가 괴물스레 막아선 바위를 만나면 두말없이 피하여 나간다. 그러나 그는 비열을 모른다. 오직 흐름만 있을 뿐이다. 그리곤 전진이다.

때론 동에 둔 바다를 등져서 산형과 지세를 따라 서쪽으로 뒤흔들려 간다. 그러나 그 물은 결국엔 동쪽의 해면에서 그의 근원적 의지의 승리를 만끽하고 해죽이 미소짓는 날을 맞는다.

한편 높다 높은 제방이 있어 강물의 흐름을 한사코 가로막을 때, 물은 한 마디 반항 없이 고요히 머문다. 하루가 아니다. 열흘이 아니다. 때로는 100년을참고 1000년을 기다리기도 한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만물을 삼킬 만한 능력을 소유했으나 그는 조용히 참아 때를 기다림이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어느 인생이 강수의 무력을 한탄할 수 있으며 홍수와 해일의 범람 앞에 부들부들 떨지 않을 사람이 그 어디에 있리. 그러나 이 가공할 힘을 가슴에 깊이 품고 시를 따르고 장에 맞추어 기다림의 지혜를 유감없이 발휘함은 오히려 그에게 바다로 향한 대망이 불타기 때문이리라.

이는 마치 시정의 무뢰배들, 가랑이 밑을 기어가든 한신과 애굽의 노예생활, 억울한 옥살이를 끝까지 견디고 참는 요셉의 인내와 지혜가 그들이 가진 대망에서 유래한것과 같다 하리라.

가다가 물은 대지를 만나기도 한다. 그 때에 그는 하염없이 태평스럽다. 거기엔 유유자적한 군자지풍을 그리고 본원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동하듯 정하고 정하듯 동하는 한가로움 속에서도 물은 여전히 제 갈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여지껏 흐르던 물이 험산 준령에 막혀 실망하고 낙담하여 그 흐름을 포기하거나 후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다.

오직 물은 흐름 뿐이다. 때를 따라 완급의 차가 있고 곳에 맞추어 흐름의 변화는 무궁무진하고 자유자재하나 물은 오직 한길, 바다를 향하여 그의 평생을 달릴 뿐이다.

속인이 있어 자갈길 바위 언덕을 만나 숨어버린 물을 보고 비굴타 비탄하여도 물은 그같은 비판과 정죄에 아랑곳 없다. 다만 그는 흐름 뿐이다.

<10페이지에 계속>

<직장속의 신앙인>

<찬송가에 얹힌 일화>

직장에 파견된 선교사

예수의 이름 권세여

—새 찬송가 32장—

안 병 복

강 신 의 집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

기독교의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면, 어느 직장에서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수요가 많다. 이런 중에서 신앙인의 자세란 꼭 중요하다. 그런데, 대개는 예수 믿는 표식을 잘 안한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신자인 것을 숨겨야만 되는가? 우리가 신앙직장인으로서 각각 직장에 파견된 선교사의 임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직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대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흘리고 죽으셨다는 이 역사적이며 영(靈)적인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막연히 예수를 믿자고 권한다면 그들이 잘 믿을 것인가?

그들은 지식이나 이성(理性)면에서 어느 정도 발달했고 인격적으로 세련된 면이 보인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기독교인의 본질을 잃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해 갈 것인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손색 없는 행동과 모습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식하게 하며, 우리의 근면 성실하고, 신숙 정확하며, 친절한 처세는 오히려 호감을 가지게 하며, 그리스도인을 존경하고 무엇인가 얻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수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이어야 하며, 피지도자보다는 지도자적 입장에 놓여야 하겠다. 지식적인 면도 그들보다 앞서야 하겠고 근무(勤務)면에서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격이나 영(靈)적으로 무언가 누르는 힘이 있어야겠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선 지도적 입장에서 제반 일에 있어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먼저 남이 안보이는 희생의 체험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키 위해선 기도의 생활이 없이는 어렵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 하시지 않았는가!

<경제기획원 근무, 초등부 교사>

이 찬송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인도에서 선교하던 「스칼」 목사의 신앙 체험담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어느날, 「스칼」 목사는 가족과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깊은 산중으로 전도여행을 떠났다. 그가 가는 지방은 복음에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불쌍하고도 난폭스러운 토인들이 야만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여 어두움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생명을 걸고 나선 그는 성경을 무기로 삼고 산중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한 골짜기로 접어들었을 때 주변 가까운 곳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걸음을 멈추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 때 그의 눈앞에는 무서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주위에는 수백 명의 토인들이 손에 창과 돌을 들고 살기등등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마치 굶주려 성난 사자들을 앞에 놓인 가엾은 어린양같이 된 「스칼」 목사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으나,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해 보겠다는 그 불붙는 사랑으로 그는 침착하였다.

위험한 지경에 빠진 그는 돌연히 바이올린을 꺼내들어 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잊을 죄인아 네 귀한 보배 바쳐서……”

그는 눈을 감고 동요됨이 없이 침착하게 이 찬송을 다 불렀다. 그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감았던 눈을 조용히 뜯 「스칼」 목사는 처음에 보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는 그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다시 그들을 보았을 때에는 창과 돌들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눈에서는 썬 일인지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진실하고 열성있는 간절한 영혼이 부른 이 찬송은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어둡고 거칠은 마음 속까지 뜨거운 성령의 불을 붙여 놓게 되었다.

그후 그는 토인들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그들의 말을 배워, 드디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생활을 전개하였다고 한다.

<청년성가대 지휘자>

□ 7호의 찬송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찬/357, 히 13/6,
WASHINGTON GLADDEN/1879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합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잘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합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복스런 믿음 주서서

늘 승리하게 합소서

장래에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합소서



<구역 소개>

흥인 구역

김 종 석 집사

우리 구역은 본래 신당구역에서 분리되어 믿음과 사랑과 성실로써 꾸준히 자라오는 동안 너무나 크게 자라서 불가피 그 일부와 신당구역 일부와 합하여 청구구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울지로 7가 서울운동장 동쪽지역에서 왕십리 교회앞까지가 됩니다.

현재 구역현황을 살펴보기 전에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난 날에는 그래도 타구역 못지 않을 정도로 알찬 구역이었습니다. 구역예배 참석인원이 30명이 넘어서 장소가 협소한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애로가 있었는가 하면 집사만도 20명이나 되니 그 규모를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또한 지소저 권사님(당시 집사)의 열심과 정보조 권사님(당시 집사)의 은밀한 중기도와 이춘심 집사님의 빠짐 없는 심방으로 사랑의 구역이라 부르리만큼 성도간의 교제가 친밀하였읍니다. 초대 구역장으로는 이번 장로님 투표에서 피택된 이용선 집사님께서 1972년 말까지 구역 발전에 헌신·봉사하셨던 것입니다.

현재의 흥인 구역은 세례교인 48명, 학습교인 9명, 원입교인 12명, 유아세례 6명으로 모두 75명이며 그중 권사님 3명, 남집사 5명, 여집사 3명으로 좀 약화된 듯 하나, 내면생활에는 과거의 굳건한 신앙이 개개인에게 살아 남아 있음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역담당 지소저 권사님은 1년 중 가정에서 보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훨씬 많은 실정이며 이를 밝히기를 원치않는 김도 선생은 자신의 생업에 분망한 가운데서라도 1개월에 1만여 이상의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족 어머니, 아들, 며느리 3명 전원이 양성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가정이 있으며 과거에 많던 구제 대상자가 이제는 거의 없을 정도로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인원은 15명 내외이지만 장소를 제공한 가정에서는 가족창을 하는 전통이 저희 구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다니, 더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일 교회의 봉사자가 될 젊은 세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권면에 사명을 맡은 중들은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봉사하시는 지소저 권사님, 이춘심·정삼애·정순오 권찰님들 위에 믿음 위에 바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흥인구역 구역장>

□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

현대신학의 동향

—서론과 19C의 자유주의 신학 중심으로—

이 중 영 전도사

◇ 논쟁의 쟁점과 특색

오늘날 현대신학의 논쟁의 쟁점은 역사와 신앙과의 문제이다.

19세기의 신학관도를 누비던 「헤겔」의 역사주의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뮐러」와 「볼트만」의 영향으로 고개를 숙인 듯하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새로운 이름들로 오늘날의 신학계를 회오리바람처럼 휩쓸고 있다.

「본 회퍼」의 암시에 뒤따른 신헤겔주의(Neo-Hegelianism)는 그것이 「코스」의 「세속화신학」이건, 「알티저」의 「사신론(死神論)」이건, 「볼트만」의 「소망의 신학」이건 새로운 차원에서의 내재주의(內在主義)임에 틀림없다.

현대신학의 흐름은 분명히 전통적 신관에서 멀리 떠나 역사와 신앙의 관련성 문제를 다시 내재적 주관성에서만 해결해 보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라 한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神)이다. 그는 역사 이전에 계시고 역사 속에 오셨고 역사의 마지막에 오실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시다.”

이와같이 기독교의 객관적 진리는 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강요됨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회 역사상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였고 또한 지상교회에 결정하여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였다. 이와같이 역사와 계시의 문제, 역사와 신앙의 관련성 문제는 비단 현대신학만의 논쟁의 쟁점이 아니다. 줄곧 기독교 역사상의 중심과제였다. 교리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역사성(즉 그의 인성)만을 주장하거나 계시성(즉 그의 신성)만을 내세운 것은 다 이단으로 단죄되었다. 그러면 현대신학은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 19세기말의 자유주의신학

19세기의 신학을 한 마디로 말하면 헤겔의 역

사주의와 「슐라이에르마허」의 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예수의 역사적 연구에 있어서 초자연적 계시성이 완전히 무시된 신학적 자유주의 시대였다. 이 시기는 특히 「예수의 전기(傳記) 신학」 시대라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역사비평학적 연구가 성행하여 예수의 생애에 대한 저서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책들이 예수를 묘사하되 나사렛 예수로만 그렸을 뿐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로는 표현하지 못하였다.

19세기말 에이·에취·스트롱(A·H·Strong)은 「50년간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은 19세기 현대신학자들의 비범한 업적이라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성경적 유신론의 내재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과학에 발맞추기 위하여 초월성을 제외하는 내재성이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시기에

① 자연과 초자연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내재성이 강조되었고

② 진화론의 가설이 창조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기원 및 운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빛으로 등장하였으며

③ 성경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고등비평이 시작되었다.

◇ 과학과 철학에 미소짓는 신학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속화된 과학과 「헤겔」의 철학의 틀에 넣어 짙어낸 신학사상이었다.

중세 기독교사상의 틀을 형성한 「에거스틴」은 신학은 “모든 과학의 여왕”이며 철학은 “신학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식의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기독교의 본래적 이해가 아니었다. 이것은 본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형이상학이란 책에서 형이상학적 신학과 다른 과학들과의 관계 문제를 취급할 때에 변호한 입장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궁극적 목적이며 최고선의 과학인 신학은 모든 과학의 여왕”이라고 하였으며 그러기에 “어떤 종류의 타 과학도 근본적인(axiomatic) 진리들에 충돌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전제가 기독교 사상에 이식되어 계시적인 신학과 이방철학과의 관계에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토마스·아퀴나스」에 의하여 종합되어 2층 구조의 신학으로 집대성된다. 즉 철학적 기초의 하층건물 위에 계시 신학을 건립한 것이다. 얼른 보기에는 이러한 2층 구조는 성경을 높이는 작업처럼 보이나 사실은 성경의 독자적인 권위를 말살시킨 행위인 것이다.

<9페이지 계속>

□ 신앙 간증 □

6·25를 돌아보며

조 현 명 장로

우리들은 월남전선을 입체전(立體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대치(對峙)하여 확고적으로 전선을 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치열(熾烈)했던 “전선 없는 싸움”인 월남전 이외에도 곳곳에서 분쟁과 전화(戰禍)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으로 시작하여 전쟁으로 끝나려는 듯,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었던 해는 단지 35년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 세상은 전쟁의 계속이라 하겠으며,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6월을 당하면 지긋지긋하던 6·25 동란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6·25를 통하여 전쟁이란 이렇게도 잔인하며 이렇게도 쓰라린 것인가를 절실히 느끼도록 쓴맛을 보았고 많은 고생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6·25를 강릉비행장 개설을 위한, 강릉항공통신소 준공점사차 출장 중 맞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버스길이 막혀 도로보로 5일 걸려 체천(提川)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을 때 「한강 다리가 끊어졌다」는 뉴우스를 듣고 입안에 든 밥이 모래알

셈는 듯 하였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후, 나는 정부를 따라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후퇴하였습니다.

하루는 미군 고문들을 위한 파티가 해운대 철도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는 피난민들의 고생이 극심한 반면, 연락과 방중에 몰두하는 타락 층도 많았지만, 초청을 받은 미군 고문 중에는 장로교 신자인 육군대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처신을 올바

로 하며 잘못 안 잘못을 철저히 가렸으며 지역만리 전쟁터에 와서도 참된 크리스찬다운 몸가짐을 보고, 나는 감격한 바 있었으며, 「혼란기에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고 마음에 다짐」도 하였습니다.

대전에서 가족을 찾고자 피난민수용소를 살살이 뒤져본 나는, 수복 후 가족과 친척 중 한사람의 희생자도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가호를 감사하였습니다.

벧전 4:7~8의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의 정신을 차리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항상 존경히 기도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를 당한 우리들의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치부 부장>

성년 충현에 붙여

김 경 칠 집사

충현 20주년을 맞으며, 지나온 날들을 돌아 볼 때 사랑과 기도의 도움을 받아 어린 학생들과 함께 뛰놀며 배우며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책임을 맡은 지도 벌써 1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의 도움으로 지나온 교사생활에서 흐뭇한 일은 처음 교사 임명을 받고 국민학교 일학년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지금 대학생이 되어 함께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일입니다.

설립 20주년을 맞으면서 교회에 바라고 싶은 것은 30주년을 맞을 때는 지금은 같은 교사로 봉사하고 있으나 그 때에는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덕이 되며 성도들에게 흐뭇한 즐거움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초등부 부감>

<현대신학의 동향—8페이지에서 계속>

그것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타협이며 결국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에 삼키움을 당하는 비극의 실마리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신학이 배태(胚胎)한 불행한 요소들의 씨를 발견하는 것이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것은 성경의 독자적 권위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말씀을 「해결」의 철학의 틀에 끼워 이해하며 과학에 맡겨주려는 열은 소치에서 나온 것이다.

거미는 제가 낳은 새끼에게 먹히운다. 중세가

낳은 신학은 2층 구조의 신학이다. 어느 정도 철학과 과학을 인정하며, 그것을 밑 바탕으로 세워진 신학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이르러 성경의 독자적 권위는 그것들에게 짓밟히우고 오히려 철학과 과학의 망위 앞에 가냘픈 미소를 짓는 자유주의 신학이 된 것이다.

***현재 본교회 선교사 후보생이며 주교 1부의 유년부 부지도 교역자인 이종영 전도사의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는 앞으로 몇회에 걸쳐서 연재될 것이다. 심분 이를 흡수하여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5페이지에서 계속>

한 평자(評者) 있어 계곡을 싸고 돌며 절벽을 뛰어내려 소리치는 함성이 천지를 뒤흔들 듯하는 낙수의 격동을 보고 “아, 그 물 경솔하고 너무 덤비누나.”라고 한다 하여도 유수는 거기에 아랑곳 없다. 단지 흐름이 있을 뿐이다.

혹자는 물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고 뒤돌아 흐르는 역류를 보고 물의 비굴함을 공박하고 계획과 진행의 모순을 웃을찌라도 물은 그 진로를 변하는 법이 없다.

범은 오직 “물이 가는(水去)” 바로 그 자체일 뿐이다.

참 목회자는 근원적 비전(vision)을 가지고 신적 유래를 가진 성령의 의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아갈 뿐이다.

흐르는 물과 같이 천변만태의 변화와 기교를 가져 때론 비굴하다고 속인의 치소를 사고 곳에 따라서는 난폭을 타하나 오직 목자는 때와 장소에 알맞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향한 전진과 성장과 긍정적 발전을 거듭할 뿐이다.

여기에 무리가 있을 수 없다. 나태와 안일이 도사릴 처소가 있을리 없다. 오직 참 지혜와 인간적 자아의 배경이 있고 신적 유래를 가진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응위를 받고 굳건히 그 터를 잡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참 목자는 과정을 지날 때에 맘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남이 알게도 모르게도 그의 피를 쏟는다. 그러나 물이 흐르듯 꾸준히 비약도 후퇴도 없이 하루의 길을 가고 오늘의 내 할 일만 한다.

그러나 그는 최후의 승리를 가진다. 그의 대망이 실현되는 바로 그 날에 자격 있는 자를 위해서만 마련된 천국의 행복과 보람을 그는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다. 물이 대양에서 영주하듯 그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주하는 것이다.

물의 흐름을 통해 천산과 만야가 풍요를 누렸듯이 목자의 평생을 통하여 교회는 살찌고 수많은 인생은 풍성한 참된 삶을 찾아 누린다.

오——. 아름다울진저, 유수의 목회 경륜을 그 가슴에 지니고 신적 대망을 향한 불타는 단심에 전체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인생을 흐르는 참 목자의 일생이여, 진정한 지도자의 향기로운 발자취여!

<새신자부 지도>



□ 심방 일화 □

우상을 불사른 가정

차 진 형 전도사

심방에 얹힌 신앙적인 일화를 들자면 한이 없겠습니다. 믿음이 부요한 가정에 가면 온화하고 평화가 있으며 옥토에 성경말씀의 씨앗이 떨어 진듯 흐뭇한 맛이 나는데 믿음이 가난한 가정(세상적으로는 부요할지라도)에는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도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강건하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감사 찬송과 간증을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된다면 하늘의 축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기 내 있을 처소를 어떻게 장만했는가 한 일화를 들어 봅시다.

믿음으로 마귀를 물리친 어느 집사님 집을 일화로 들겠습니다. 85세의 할머니를 모시고 셋방살이를 하던 해군 중령택의 간증입니다.

집 주인은 언제나 노인과 아이들을 싫어하였습니다. 약 7년전에 여러가지 궁리 끝에 흉가라고 소문난 집을 헐값에 샀습니다. 우상기구를 불사르고 깨끗이 청소한 다음 주야로 찬송을 부르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 다. 그 결과 7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 다. 집을 살 때보다 3배 이상 남아서 팔고 현재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고 감사 예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곳을 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무당의 집에 살라면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서운 마귀의 집이었으니까 그렇겠지요.

80년 불교숭배 결과 사업의 실패로 가난과 노환으로 병치레만 하던 할머니가 어느 장로님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깨달은 바 있어 가족회의를 열어서 우상과 불교신상을 모두 불사르고 참 신앙을 찾기 위해 금년 봄 등록을 결심 하였습니다. 먼 거리지만 매주일 잘 출석하여 오래 전에 먼저 믿는 자보다 올바른 신앙으로 자라를 볼 때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감사

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과 주의 안보하심으로 내 있는 처소가 축복의 장막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고 참 신앙을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우리 교우가 됩시다.

<심방 담당 전도사>

□ 제 언 □

주일학교 학생 되자

정 석 태 집사

교회의 사명 중에서 교육을 배어낼 수는 없고 성도의 의무 중에서 성경공부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더우기 장년성도라 하여 배우는 일에 중단이나 졸업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며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지상생활의 끝날까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생이 되어 열심을 다하여야 하 겠습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주일의 대예배 한 시간으로 「성수 주일」을 다한양 하며 또 주일학교란 초·중·고·대학생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외면하여 버리고는 각종 학교를 졸업하면 주일학교도 졸업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일학교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땅위의 모든 성도가 학생이 되어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졸업은 천국 가는 날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교회에서도 예배와 성경공부는 주일의 양대 행사로 중요시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므로 오늘의 한국교회의 초석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성경공부를 성도님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목사님을 모시고 체계있게 공부하며 연구를 함께 하여 주일에 한 시간씩을 주님께 더 바쳐서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 학생이 되어 성경공부에 참여하시기를 권하면서, 다음과 같이 장년부의 성경공부 시간과 장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시간 : 매주 11시 50분부터 한시간

장소 : 유년부실(1층 기도실)

<남전도회 회계>

충현 설립 20주년 맞아

김 기 정 장로

지난 20년간의 세월은 우리 역사 위에서 가장 많은 변혁을 이룬 시기였다. 그에 비해 「정년 충현」은 안일한 나날을 보낸듯한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껴 본다. 역사는 싸움이라고 했듯이 앞

으로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함에 있어서 우리들 앞길에는 적지 않은 시련을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 천국 일꾼을 키워내는 일 등 우리 「충현」에 맡겨진 사명은 무겁고 또한 크다. 지혜 있는 자는 경험에서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슬기로운 민족은 시련에서 역사의 지혜를 배우듯이 「충현」은 지난 20년의 성장의 자람에만 도취되지 말고 새로운 역사적 도전에 보다 신앙적인 응전으로 모두 함께 빛나는 걸음의 정진이 있을 뿐이다.

<재정위원회 위원장>

□ 신앙 상담 □

취직시험이 주일인데.....

□ 대답 : 백 성 룡 목사

【문】 군 복무를 마친후 어렵게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주어진 기회가 주일에 취직시험이 있어서 믿는자로서 망설여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요?

답 주일 성수(주일을 지키는 일)에 관련된 문제인데 한 마디로 취직시험을 주일에는 치를 수 없다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주일 성수가 구원에 직결되어서가 아니라 ①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며 ② 행복하고도 풍요하게 사는 방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소요리문답 제60문에서 「사세 부득이한 일과」라는 말이나 대요리문답 제117문에 「부득이한 일과」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일은 비신앙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군인이나 경찰처럼 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필경은 완전한 성수 주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고로 공무집행중이므로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공무 때문에 공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든가 제대로 성수 주일을 못하는 것을 피로와 하며 모든 사람이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며 또 기원하는 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니다.

이제 귀하는 「모처럼 취직할 기회」를 운운하시지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에게서는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간 시련을 겪어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요셉이나 다니엘이 어떤 시련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있는 터이지만 주일 성수 하나만 두고서도 우리 충현교회는 어느 정도로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지 지난 날의 일을 실례로 알아 두시는 것도 좋을 줄 압니다. 즉 화폐개혁 당시 돈 바꾸는 날이 주일이었으므로 큰 손해가 나드라도 돈을 바꾸지 않도록 하였든 것입니다.

주일에 학교나 관공서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데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나 별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여하튼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왕에 취직한 사람들도 직장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 형편이라면, 애당초부터 주일을 범해 가면서 취직을 하는 일이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지론입니다.

<구역 소개>

금호 구역

백 찬 수 집사

하나님께서 우리 충현교회를 사랑하시어 20년 동안 변함없이 날로 부흥·발전하게 하심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회 1500세대 중 우리 구역은 꼭 1/100인 15세대입니다. 너무 미약하고 힘이 없는 구역인지라 공개할 만큼 아름답고 선한 사업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구역임을 새삼 깨닫고 구역장으로서 하나님께 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미약한 금호구역의 부흥발전과 가가호호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평강할 것과 성령충만함을 입어 몸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일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호구역 현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은 황창룡 장로님, 이곤녀 집사님을 위시하여 박선자 집사님 이재춘 집사님 이보금 권찬님이며 현 세대수는 15세대, 교인수는 남 18명 여 25명 모두 43명입니다. 그중 세례교인이 남 9명 여 21명이고 유아세례인이 남 3명 여 2명이고 원입교인이 남 6명 여 2명입니다.

비록 세대수는 적으나 구역 권찬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심방하시는데 애로 사항은 너무 많습니다. 교인들의 생활능력이 어려운 세대가 대부분임으로 높은 언덕에 오르내리며 심방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힘든 심방이지만, 금요일 구역 심방을 한번도 빠짐 없이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보금 권찬님은 금년 61세로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실 분이지만 높은 언덕을 오르내리시며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는 금요일 심방을 수차 못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빠짐 없이 심방하여 개근상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다.

그리스도로 옷입지 않으면 이 보수도 없는 일을 희생과 봉사로써 끝까지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 오로지 천국을 목적으로 삼고 선한 사업을 위해 충성할 때 하늘에서의 상이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금호구역 구역장>

□ 우리가정의 신앙교육 □

성경이상의 길잡이는 없다

안 윤 진 집사

제가 예수님을 처음 알기는 1954. 3. 27. 용문산 집회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 전부터 그랬듯이 남편은 완전히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여자로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면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자살도 해 보려고 양젖물도 마시고 남편 마음을 돌리기 위해 굶도 해 봤지만 주님을 알면서 부터는 주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그럴수록 남편의 박대는 심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과 교회를 가면 “너나 귀신에 걸릴것이지 아이들까지 미치게 하려고 그러냐? 고도 하였지만 이럴수록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겠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남편의 사업은 망하게 되었고 전에 살던 그 좋은 집도 떠나서 목정동 전세방에 우리 8식구가 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완전 무기력해서 살아갈 것이 막막하였지만 녹 18장을 생각하며 그때, 진 순자집사님께 양장지를 받아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행상을 하였습니다. 행상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면 온 몸이 피곤하였지만 새벽기도 나가는 것과 가정 제단을 쌓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점점 움직여 같이 예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들 처지를 알아서 과외도 하며 공부도 잘해 고생을 하는 중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며, 고난 가운데서 참는 중에, 지금은 남편도 회개하여 세례도 받았고 집과 자가용까지 있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는 인내외에도 참으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방에서라도 자녀들과 같이 매일 아침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찾은 것이 지금 축복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의 축복을 주셔서 8 남매나 주셨습니다. 전부 대학까지 나오고 또 남은 아이들도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한가지 확신이 있다면 성경이상의 더 좋은 길잡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항상 성경으로 가르치며, 기도를 시키고 성경대로 살아, 이 악한 세대를 본 받지 말라고 권고하는 외에, 항상 자녀들은 나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며 임원이나 성가대, 총무, 반사등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녹 18장과 뒤후 3:14~17을 생각하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청년부 부감>

□ 기자석 □ 기자석 □

문서활동은 정비되어야 한다

나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의 수고로움을 잘 모른다.

그러나 엇비슷하나마 이렇게 아닐까 하는 내 나름대로의 실감을 느껴보는 때가 있다. 「충현」지를 발행할 때마다 그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바로 그렇게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다.

잡지에 대해 문의한인 내가 「충현」지와 인연을 맺기는 제1호가 발행된 1972년 4월 20일 한두 달 전부터였으니 일년이 넘는 셈이다.

듣기로는 「충현」이 있기 오래 전에 이미 「충현동산」, 「충현주교」등의 이름으로 지금과 비슷한 크기로 발행되었었다.

그러나 이들이 잘난 자식이었든 못난 자식이었든 출산의 수고로움이야 대차 없었을 터인데 오랫동안 계속하지 못하고 요절(腰絶)을 하였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혹「충현」지도 제구실할 만큼 자라기도 전에 그 지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늘 느낀다.

물론 할 바를 다 못했기에 그와 같은 악순환의 연속이었겠지만 현재와 같은 「문서활동의 불모지」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 아닐까하는 일면 수궁이 가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도 한국에서는 맘모스급에 속한다는 우리 교회이기에 매주 각 기관에서 수많은 유인물이 쏟아져 나오지만 이를 눈여겨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마치 산속 깊숙히 있는 사람이 산의 모양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활자정보」의 울창한 숲에 싸여 산의 모양을 지각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몇번이고 현재의 유인물 난무가 제계있고 일관성 있게 교회 목표로 유도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물론 「충현」지도 예외일 수는 없다.

<표>

* 교회 뉴스

□ 농어촌교사 초청훈련

매년 여름마다 본 교회의 교사들을 파송하여 미약한 농어촌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여 줌으로써 수동적 자세에 놓이게 되는 농어촌교회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소재 주일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본 교회에서 훈련시킴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도움을 주자는 데 착안하여 금년에도 우리교회는 농어촌교사 초청훈련을 실시한다.

금년으로 두번째 실시되는 이 훈련은 오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며 수강대상은 ① 농어촌 소재 본교(연간 합동) 산하 교회로써 ② 현재 주일학교 교사가 5명 이상 있는 교회이어야 하며 ③ 세례교인으로 현재 주일학교 부장이나 남녀 제직인 분에 한하며 ④ 한 교회에서 2명 이내로 한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중현교회 지도자 양성부로 문의하기를 바라며 이 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교사들의 숙식과 왕복여비가 제공되고 훈련교과는 성경론 기타 9과목이라고 한다.

□ 새로이 다섯 분 장로로 택함입어

지난 5월 27일 I. II부 예배시 7분 장로를 택하기 위한 장로투표가 있었다. 그 결과 한분도 당선된 분이 없어 5월 30일 수요일에 재투표가 실시되었는데 이 투표에서 다섯분만이 새로 선택되었다.

앞으로 중현제단에 몸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게 될 새로이 택함을 입은 분들은 이용선, 박창수, 윤용규, 이창업, 유병세 집사이다.

□ 해외선교회 소식

지난 4월 30일 보내온 최근 소식에 의하면 그간 본국 교회의 은성도들이 기도로 밀어드리고 있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은 지교회의 행정을 강화하고 기구를 개편하며 노회가 열리는 동안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시는 등, 능력 있는 복음 사역을 하신다고 한다.

특히 요즘은 이교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극렬한 이슬람교도들이 거하는 「송구미네하사」 지방을 탐색하여 전도전략을 세우며 기도중이라고 한다.

그 외에 해안지역을 따라 촌락교회들을 탐방하며 순회전도를 끝내셨다고 한다.

한편 이제까지는 말을 타고 선교에 나섰던 서만수 선교사는 우리 중현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신의 열매로 바라던 지프차 구입이 성취되어 지난 4월부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더욱 능률적으로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난 7월 1일에는 「해외선교」 제4호가 32절 크기의 6페이지로 발행되었다. 앞으로 월 1회로 하여 4페이지 정도로 계속 현 380여 해외복음선교회 회원들과 온 교우들 앞에 선교회 소식을 전하여 주리라 한다.

□ '73 전도요원 훈련

본교회 전도부는 전도사명의 생활화와 금번 농촌교회 부흥을 위하여 파송될 전도요원 훈련을 오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실시하리라 한다.

주로 성령충만을 위한 말씀과 개인전도방법, 농촌교회 상황 이해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중현교회에 속한 청·장년 성도는 누구나 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오는 8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을 농촌전도대 파송을 위한 전도대 편성은 이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7월 19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고 한다.

□ 교회설립 20주년 기념

1973년 9월 6일로 설립 20주년을 맞는 우리 중현교회는 20주년 기념행사로 성경암송 대회와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를 9월 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린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중현의 온 가족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된 이 행사의 세부 계획서가 지난 주일(7월 1일) 배부된 바 있다.

또한 「중현 20년사」 출판에 위한

본격적인 편집도 착수 되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 책자의 출판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동원되고 있으며 각 기관은 편집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신속히 제시하여 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중현 20년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바란다고 한다.

□ 성경학교 분과위원회

첫 모임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진리를 바로 터득하여 바르게 실천하는 진실한 생활인과 교회의 봉사자를 양육함을 목적으로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사업으로 성경학교를 개설하기로 하고 그 성경학교 분과위원회의 첫 모임이 지난 6월 3일 있었다. 이 자리에서 성경학교 설립 계획안(4페이지 원문 참조) 초안이 논의되었다.

수업연한은 3개년으로 1973년 9월 18일 개교 예정이라고 한다.

□ 전도대 파송 계획

본 교회 전도부에서는 농어촌교회 소재지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대를 파송한다고 한다.

오는 8월 6일부터 11일까지 파송될 이 전도대는 지도교역자를 포함한 남녀 청장년 5명 내외로 구성되어 6개지역에서 전도사업을 실시하리라 한다.

전체 비용은 본 교회 전도부가 부담하리라 한다.

□ 주교 각부 하기

수양회 준비 활발

※ 새·치·유·초등부

회수: 제20회

기간: 7월 25일~7월 29일

장소: 본 교회당

주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린이(출 20:2)

강사: 원우연 전도사, 홍종만 전도사

※ 중등부

회수: 제11회

기간: 7월 25일~7월 28일

장소: 중회신학대학

주제: 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라(레 6:12~13)

강사: 변한규 목사

※ 고등부

회수: 제11회

기간: 7월 24일~28일

장소: 청평 한일산 기도원
주제: 성령으로 새롭게
(딤후 3:5하)

주찬: 611장
강사: 최현우 목사

※ 대학부

회수: 제 4 회
기간: 7월 16일~20일
장소: 경기 입석 기독교 태화
수양관

주제: 생활 속에 십자가를!
(눅 9:23)

주찬: 161장
강사: 홍정길 목사

※ 청년부

회수: 제 3 회
기간: 7월 16일~18일 오전
장소: Y.M.C.A 캠프장
주제: 깊은 피를 그기스도에
개!(롬 6:13)

주찬: 468장
강사: 정상우 목사, 이종영 전
도사

※ 장년부

회수: 제 1 회
기간: 8월 27일~31일
장소: 본 교회당

※ 어린이회·어린이 성가대

회수: 제 1 회
기간: 8월 23일 ~25일
장소: 임마누엘 기도원
강사: 홍종만 전도사

□ 수도노회 강습회 성황

수도노회 주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교사 및 중·고·대학부 수양회 교사 강습회가 지난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25노회, 143교회에서 모인 793명의 주교 자부 교사들은 이번 강습회가 적절하고 알찬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 금년도 경노회 열어

청년부의 연례 행사로 열리는 경노회가 지난 5월 26일 정오부터 유년부실에서 있었다.

70세 이상의 100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큰 아이들의 재롱에 만족하신 듯 시종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이었다.

□ 교육관 착공

당분간 어려울 듯

급증하는 주교 학생들의 교육 장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축을 서둘러온 교육관 공사가 인근 주민의

* 교회 뉴우스

비협조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어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야 하리라 믿는다.

□ 헌혈 참가자 80명

해마다 있어 온 우리 교회의 헌혈운동이 지난 6월 3일에 있었다.

대한 적십자사 혈액원이 재혈을 맡은 이날에 헌혈자는 모두 80명으로 예년에 비해 그 숫자가 훨씬 적은 것은 그 날 대외적인 행사가 증폭되어 있었던 원인으로 보는데 유가운데 다시 한번 헌혈의 기회가 있으리라 한다.

□ 남전도회 노방전도

지난 5월 13일 월례회를 마친 100여 남전도회원들은 장충단공원의 노방전도에 참가하였다. 전도지 1000여장을 배포하였고 3명의 결신자도 얻었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많은 학생들의 본을 보인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다.

□ 유·초등부 전도의날 성과 대안

유·초등부에서는 지난 6월 한달을 전도의 달로 설정하고 「한 사람이 한사람씩 인도하자」는 구호아래 전도의 열을 불붙였다. 6월 3일은 전도의 날로 정하고 미리 약속하였던 친구를 인도하게 하였는데 이날 하루에 인도된 어린이는 초등부만 61명, 유·초등부 도합 80여명이 되었다. 이는 정말 큰 성과라고 보며 이들 새로 나온 어린이들을 위한 친교회도 열었는데 요는 어린이들이 인도하여 온 이 많은 영혼을 교회는 어떻게 묶어둘 것인가가 문제라고 본다.

□ 학생들 교회음악 발표

음악에 재질이 있는 학생들로 자기의 재질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교회음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여 진정한 찬송을 생활속에 침투시킬 목적으로 대학부가 주최한 중·고·대학생 교회음악 발표회가 지난 6월 2일(토) 오후에 대예배실에서 있었다.

주로 기악연주 발표가 이날의 중심이 되었는데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여전도회 야외예배

항상 봉사자로 헌신하는 300여 여전도회원들은 지난 5월 15일 정능 그린팍에서 야외예배를 통한 자연 속의 성도교제를 두터이 하였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자적인 익살로 시를 웃기는 가운데 진정한 한마음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 중등부 성경암송대회

18반과 개인 5명이 참가한 중등부 성경암송대회가 지난 5월 27일 본당에서 열렸다. 반별 대항전이라 전례 없이 불을 뿜었는데 아무튼 좋은 일에 한마음이 되어 열을 올리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한편 6월 6일에는 한영 중고등학교 교정에서 200여명이 참가한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청·백팀으로 나뉘어 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룬 이날의 체육대회는 마치 학교 체육대회를 방불케 하였다고 한다.

□ 고등부 성경 읽기대회

암송대회는 흔히 있으나 읽기 대회를 가진 것은 고등부가 처음이 아닌가 한다. 5월 12일 4층 예배실에서 있는 이날의 읽기 대회는 갈라디아서 1~4장을 틀리지 않고 누가 더 빠르게 읽는가 하는 경기였는데 간혹 성경을 잘못 읽는 이들은 한번쯤 참가해 볼만한 대회다.

□ 첫번 교직자회의

지난 5월 7일 본 교회당에서는 서울지구 교직자회의가 열렸다.

한달에 한번씩 갖게 될 이 회의는 노회를 초월한 합동축의 목사·장로·전도사들의 회의로써 이번 모임은 그 첫 모임이었다.

□ 신앙 웅변대회

「귀 있는 자는 들을 꺾어다」라는 주제로 대학부가 주최한 중·고·대학부의 신앙웅변대회가 지난 6월 23일 오후 본당에서 있었다.

400여명의 학생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날의 최우수상에 이대녀(중), 우수상에 이경희(중), 이대길(대), 장려상에 김현수(고), 김성길(대)이었다.

